개인(個人)은 '못-나누미'이다

구연상(숙명여대)

1. 개인(個人)이라는 번역어의 유래

- "개인(個人)"이란 낱말은 영어 **"individual"의 번역어**로 생겨난 것[1]

> **'메이지(明治) 유신(1868-1889)'**을 통해 일본은 봉건적 막번(幕藩) 체제가 끝나고, 중앙집권적 통일 국가와 자본주의 사회가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서양의 학문어가 일본으로 물밀듯 밀려들어온다. 이러한 새로운 사상을 일본에 정착시킨 집단이 바로 일본의 **신문명론자들**이다. "개인(個人)"이라는 말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태어난 말이다.

> "개인(個人)"이란 말은 **중국 고전**에서는 "**그 사람, 저 사람**"을 뜻했다. "개(個)"라는 낱말 자체가 '**하나**'라는 뜻을 갖기도 한다.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1782-1834)에 의해 출판된 대역사전 『영화자전』(英華字典, 1815-1822)에서 "there is but a single individual there."라는 영문이 "독유일개인재나처(獨有一個人在那處)", 즉 "단독으로 **일개인**이 도처에 있다."라는 말로 옮겨지고 있다. 그 뒤에 나온 『영한자전』(英漢字典, W. H. Medhurst, 1847-1848)에서 "Individual"은 "**단신독형(單身獨形)**, **독일개인(獨一個人)**, **인가(人家)**" 등의 대응어가 사용되었고, "my individual self"는 "**본가(本家)**"로, "individuality"는 "**독자(獨者)**, **독일자(獨一者)**"로 옮겨지고 있다. 다시 20년 뒤에 편찬된 로브샤이드(W. Lobschied)의 『영화자전』(英華字典, 1866-1869)에서 "Individual"은 "**단(單)**, **독(獨)**"으로, "an individual man"은 **"일개인(一個人)"**으로, "an individual article"은 "일건야(一件野)" - 하나의 항목 - 로, "Individual, a

[1] 최경옥, 「메이지기 [individual]이 [個人]으로 번역되기까지 -한중일의 용례를 중심으로-」, 『우리말로 학문하기의 고마움』, 채륜, 2009.

single human being"은 "**독일개인(獨一個人)**, **독일자(獨一者)**"로, "an individual animal"은 "일척수(一隻獸)" - 한 마리의 동물 - 로 설명되고 있다. 중국에서 "개인(個人)"이라는 단어가 처음 단독으로 등재된 사전은 **『대사전(大辭典)』**(下中彌三郎, 平凡社, 1934)로서 여기서 "individual"은 **"개인(個人), 소기(小己). 독일자(獨一者)"**로 풀이되고 있다.

> 반면 **일본의 경우**는 1860년대까지도 "individual"을 "**일체(一体). 일물(一物). 일인(一人)**", 즉 "하나의 몸, 하나의 물건, 혼자"(『英和對譯袖珍辭典』, 1862)로 번역했다. **밀**(J. S. Mill)의 자유론(On Liverty, 1859)의 번역서 『자유지리(自由之理)』(中村正直 옮김, 1872)에서 "individual"은 **"일개인민(一箇人民)"**으로 옮겨지고 있다. **복택유길**(福沢諭吉, 1834-1901)은 「일신(一身)의 자유(自由)를 논(論)한다」라는 논설문에서 "individual"을 일본 고유어 **"인각(人各々)"**, 즉 "사람 각각"이라고 옮기고 있지만, 『문명론지개략(文明論之概略)』(1875)에서는 "individual"을 **"독일개인(獨一個人)"**으로 이후에는 **"일개인(一個人)"**의 형태로 널리 사용했고, 1890년대에 들어와서는 **"개인(個人)"**으로 줄어들었다.

> **한국의 경우**, 번역어 "개인(個人)"이 수용되기 이전까지는 **"개(個)"**가 **'하나'**를 뜻했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한자어휘집 『광재물보(廣才物譜)』(1800년대 초반으로 추정)에는 **"개(個)"**가 "수물지칭(數物之稱)", 즉 "물건의 수를 지칭하는 말"로 설명되었다. 1891년에 출간된 『English-Corean Dictionary』(제임스 스코트)에서는 "individual"이 **"놈"**으로 번역되어 있다. "개인(個人)"이란 말은 1903년 **초등학교 교과서 『초목필지』**에서 처음 발견된다. 이때의 교과서들은 1895년 **갑오개혁**에 따라 소학교령이 반포되고, 관립 소학교를 설립하게 되면서 학부 편집국에서 간행한 것들이었다.

2. 그리스 비극과 개인의 문제

"인디비듀얼(individual)"이라는 낱말은 라틴어 낱말 "**individuus**"에서 나왔다, 이 라틴어 낱말은 **"나뉘지 않는"** 또는 **"나뉠 수 없는"**의 뜻을 갖는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에는 "어

떤 한 사람에게 특징적인"의 뜻으로 설명되어 있다.

>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Die Kultur der Renaissance in Italien)』**(1860년)를 지은 **야코프 부르크하르트**(Jacob Burkhardt)에 따를 때 **르네상스 이전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단지 "**인종, 민족, 정당, 가족, 결사의 일원**"으로서, 즉 "일반적인 범주"를 통해서만 인식했을 뿐이지만,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이 세상 만물과 그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대처"가 일어났고, 그와 동시에 "주관적인 측면도 그만큼의 무게로 강조"되었으며, 결국 인간의 **"자유로운 개성"**이 발화되기 시작했다. 객관 세계에 대한 과학적 강조가 동시에 인간 자신에 대한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인식을 촉발시켰고, 이로써 인간이 "개인"으로 된 것이다.

> **루이 뒤몽**(Louis Dumont)은 **『개인주의론: 근대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류학적 관점』**(1983)에서 "**개인주의(個人主義, individualism)**"가 서구세계만의 특유한 근대적 현상이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의 공동체"라는 새로운 사회 형태를 만들어 냈고, 이는 이론상 "모든 믿는 자들의 평등에 기초한 사회" 또는 "모든 구성원이 하느님 앞의 개인으로 불릴 수 있는 사회"라 볼 수 있다. 뒤몽은 "개인주의의 제도화"가 기독교적 바탕에서 시작했고, 모든 신자들의 정신적 연합,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존재인 각 개인들의 연합임을 자처하는 세속적 사회라는 일반개념으로부터 발전했다고 보았다.

> **소포클레스**(Sophocles)의 **『오이디푸스 왕(Oedipus Tyrannus)』**: 오이디푸스는 파멸에 이르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밝혀 나갔고, 결국 **신 앞에서 "개인"이 되었**다.

> **한나 아렌트**가 쓴 **『인간의 조건』**에 따를 때, 고대 그리스 사회는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엄격히 구분**했다. **공공적 세계의 지배적 원리**는 **평등과 올바름**이었는데, 이것은 귀족이든 평민이든 시민(자유인)이면 누구나 다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로운 개인"**은 폴리스(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했고, 그 결과에 승복했다. 반면 **사적 세계**는 가장에 의해 통치되는데, 가족의 구성원들 가운데 여자나 어린아이는 가장의 소유물로 간주되었고, 노예들은 사고 팔 수 있었다. 여기서 가장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전적인 지배권을 가진 "티라누스"(폭군)의

지위에 군림했다. 즉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개인"이었던 것은 아니고, 법률의 제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자유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지위"를 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의 본질: 프시케

> **사람**은 "몸과 영혼의 결합체"로서 이해됩니다. "사람"은 "인간(人間)"과 다르다. **"공간(空間)"**은 "비어 있는 사이", 즉 "그 어떤 물체에 의해서도 채워져 있지 않은 빈 자리"를 뜻하고, **"시간(時間)"**은 "때와 때의 사이", 즉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 어떠한 때에 의해서도 채워져 있지 않은 빈 자리"를 말한다. 그렇다면 **"인간(人間)"**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 또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뜻한다.

> **플라톤**은 **이데아(idea)의 증명을 위해 누우스(nous)라 불리는 영혼의 불멸을 증명**하려 했다. 움직이는 모든 것 속에는 그 물체를 움직이게 해주는 어떤 힘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 힘을 "운동의 원리"라 부를 수 있다. 플라톤은 그것을 **"프시케"**란 이름으로 불렀다.

플라톤은 사람에게는 **네 종류의 프시케**가 들어있다고 보았다. 가장 낮은 단계의 프시케는 아이스테티스(aisthesis), 다음 단계는 피스티스(pistis), 즉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고, 그 다음은 고도의 프시케 능력으로서 디아노이아(dianoia), 마지막으로 최고의 프시케를 뜻하는 **"누우스(nous)"**가 있다. 정신을 통한 직관 능력, 즉 누우스는 **사람의 본질**이다.

> 이 세계에는 프시케가 들어있는 물체와 그렇지 않은 물체로 이루어져 있다. **프시케가 빠진 순수한 물질**은 **"쪼개질 수 있는 것"**, 즉 **"나눠질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쪼개질 수 있는 것이 물질로 이해되는 순간, 프시케는 쪼개질 수 없는 것, 말하자면, **아톰**(atom)으로 정의된다. **몸 안의 프시케**는 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쪼개지거나 나뉘거나 썩거나 파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 없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의 본질(本質)**, 즉 **"본디의 바탕"**은 **몸이 아니라 프시케(영혼)**라고 여겨졌다.

> 이 **영원한 프시케**는 나누거나 쪼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완벽한 구분을 가능케 해 준다**. 이것이 바로 **본질의 역할**이다. **플라톤에게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개체"**, 즉 **개인**이다. 사람의 개체성은 몸과 프시케의 결합을 통해 주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을 수 없는 프시케'**를 통해 확보된다.

> **오이디푸스 왕**은 테베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던 반면, **플라톤**은 인생의 길 전체에 대한 조망을 통해 "프시케에게 보다 나은 삶"을 선택해 나간다. **개인**은 **스**

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자유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고대 그리스의 개인은 스스로와 공동체 모두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까지 좋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무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개인은 몸의 욕망을 누르는 대신 프시케의 진리, 더 나아가 신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4. 물질 개념의 변화

> 고대 그리스의 개인관은 **중세 기독교 사회**를 거치면서 **"이마고 데이(imago dei)"**, 즉 **"신의 모상"**으로 바뀌게 된다.

> **서양의 근대과학**은 교회의 감시와 위협 속에서도 **물질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창조**해냈다. 물질 개념이 바뀌면 그것의 대립 개념인 정신 개념도 바뀔 수밖에 없고, 그 여파는 결국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

> **근대 과학의 연구방법**은 **수학적 방법과 관찰과 실험의 방법**이었다. **물체의 운동**은 현상 차원에서 연구되었고[⇒ 본질은 제외되었다], **법칙**은 수학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차원에서 제시되었다. **자연의 운동**은 이제 프시케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는 물질에 대한 정의를 바꾸었다.**"레스 엑스텐자(res extensa)"**: **"연장성(延長性)을 갖는 사물"**, 달리 말해, **"공간적 크기를 갖는 것"**을 뜻한다. 이와 반대로 **정신(精神)**은 **"레스 코기탄스(res cogitans)"**, **"사유(思惟)하는 사물"**, 달리 말해,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 **물음의 방식이 바뀐다는 것은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 물질을 "공간적 크기를 갖는 것"으로 정의내리는 것은 "**공간에 대한 정의**"가 앞서 주어지지 않는 한 큰 의미가 없다. **"공간(空間)"**은 "어떤 것이 놓일 수 있도록 치워진 곳"을 말한다. 공간에 놓이는 것이 무엇이 됐든 "놓일 자리"로서의 공간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곧 **기하학(幾何學)**이라고 할 수 있다.

> **근대 철학자들**은 **공간**을 잴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오늘날 **빅뱅(Big Bang) 이론**은

우주가 태어나고 펼쳐지고 죽게 될 사건을 말해 준다. 이 사건을 통해 **공간도 시간도 비로소 생겨납니다.** 이때 "생겨난다"는 말은 그 이전에는 시공간이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간과 시간은 절대적일 수 없고, 우주의 탄생이라는 조건에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 현대 **양자의 세계**에서 모든 물질은 에너지의 흐름으로 이해된다. **물질**은 에너지의 패턴으로서 "공간 안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간적 크기"로써 재어질 수는 없다.

> 물질 개념은 근대 과학을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물질**은 더 이상 프시케와의 대비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공간의 정의에 기초해 설명된다. 공간적 크기를 갖는 물질은 그 안에 프시케와 같은 것을 전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살아 있는 것"일 수도, 그 안에 어떤 목적을 갖는 것일 수도 없다. 물체의 운동은 자기 목적을 향한 "조화로운 생명 운동"이 아니라, 그저 외부적 충격으로부터 시작되어 '원인-결과'의 법칙에 따라 톱니바퀴처럼 진행되는 "기계적 운동"일 뿐이다.

5. 못-나누미

> **사람의 몸**은 분명 공간적 크기를 갖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의 몸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동 기계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 **사람이 단순한 물체도 아니고 악마의 허수아비도 아니기 위해서는 그 두 사실과 무관한 어떤 독립적인 요소가 사람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 **데카르트의 전략(『성찰』).** 첫째, **악마의 문제는 악마의 본성이 속이는 데 있다는 것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사용해 타파해 나가고, 둘째, **자동 기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신체와 그것의 주인을 구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 데카르트는 이러한 **정신의 본질**을 **"생각하는 힘"**에서 찾았다. 정신은 생각하는 힘을 그 본질로 가진 어떤 것을 말하지만, 결코 공간적 크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우리는 **"나"**라고 부른다.

> 이러한 **'나'의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념**이 바로 **"individual"**이다. 이것은 "개인(個人)"이라는 낱말 대신 **"못-나누미"**라는 말로 옮길 때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된다. "**individual**"이라는 낱말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루는 두 요소 가운데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부분", 즉 정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 **정신적 실체**로서의 '나'는 '못나누미'로서 물질 세계의 필연적 인과 법칙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신의 전지전능한 지배력으로부터도 최소한의 자율성을 갖게 된다.

6. 개인주의

"개인주의(individualism)": **"한 사회에 속한 개인의 결정권**(the right to make one's own decision)**이 개인 자신에게 있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제도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개인주의"라는 단어가 **1830년대 영국**에서 사용되었을 때 그것은 "비난의 뜻"으로, 불쾌감이나 적대감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개인주의가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하고, 끝내 사회를 해체시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 공동체나 집단 또는 사회에 대한 반대자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던 것입니다.

> "개인주의자(individualist)"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조제프 드 메스트르**(Noseph de Maistre). **라므네**(Lammenais), 소설가 **발자크**는 1839년 "현대사회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흉측한 악, 개인주의를 창조했다."고 비난, 사회주의자 생 시몽(Saint Simon)도 개인주의를 비판했고, 초기의 공산주의자 **오귀스트 블랑키**(August Blanqui)는 "공산주의자는 개인의 보호자이나 개인주의는 개인을 말살시킨다."고 주장했다.

> 반면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하여(On Democracy in America)』(1835) 2권 2장 「민주주의 국가의 개인주의에 관하여(Of individualism in democratic countries)」에서 "개인주의는 새로운 표현으로서 그것은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생겨났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기주의**라는 말밖에는 알지 못했다. 이기주의는 열정적이고 과장된 자기애로서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연관시키고 자기 자신을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게 만든다. **개인주의는 성숙하고 냉정한 감정으로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신을 다른 인간들의 무리로부터 떼어놓고 가족과 친구들에게서도 떨어져 나오게 만든다.**"

7. 일제 강점기 소설에서의 개인

"개인(個人)"은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 규정되는 말이다. 가출 청소년들은 자신이 속한 가정과 학교라는 공동체를 일종의 감옥으로 여긴다. 거기에는 자유가 없는 셈이다.[⇒ 파우스트의 여자 주인공 마가레테(그레첸)이 탈옥을 거부하는 장면]

> 1900년대 초 한국 소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인의 출현과 당시 공동체의 관련에 대해

첫째 **"떠도는 개인"** > 염상섭의 『만세전』

둘째 **"녹아드는 개인"** >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셋째 **"쓰러지는 개인"** >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

당시의 조선의 "개인들"은 신분적 계층의 부조리, 무지함의 비극, 약자의 서러움, 시대의 악 등을 나름대로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시대의 모순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스스로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했으며, 따라서 자신들이 처했던 역경과 고난에 올바로 대처할 수가 없었다.